

명품이름 따로 있다

야심차게 선보인 신제품. 이름이 같다

2009년 05월 13일 (수) 09:48:56

박광선 기자 ✉ksparket@empal.com

[프라임경제]기업이 좋아하는 명품이름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최근 선보인 빌립의 MID 'S5'와 아이팟 공식인증 무선이어폰 'S5', 말레의 명품가전 'S5' 청소기 등의 이름이 같은 것. 또 '엣지' 라는 단어가 소비자들의 패션,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어필되면서 관련 IT 기기에 엣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쉽게 각인되면서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제품들. 같은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반응만 보인다면 동일한 이름으로 공략을 하기도 해 눈길을 끈다.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의 IT 기기의 신제품에는 유독 'S', 'X', 'P' 라는 알파벳이니셜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지닌 'S'라는 이미지를 넣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좀더 친숙하게 어필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다. 특히 다양한 제품의 기능을 압축한 숫자개념의 '5'를 통해 친밀감과 우수함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 발표, 09년 4월에 정식 출시한 빌립 MID 'S5'는 최근 선보인 MID 중에서 가장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제품으로 이미 홍콩 200대 예약판매와

더불어 미국 수출까지 앞두고 있다. 빌립 'S5'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포켓 PC의 형태로 정품 Windows xp가 탑재되어 있다. S5의 'S'는 mid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소비자들에게 전한다는 의미의 'Smart, See, Search' 등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S5는 겉모습은 PMP처럼 생겼지만 운영체제로 Windows xp를 사용하기 때문에 워드, PPT 등의 문서 편집은 물론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등이 지원되지 않았던 휴대폰이나 PMP에서의 인터넷과 달리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무선랜(WiFi)과 블루투스, GPS, 지상파 DMB 등의 다양한 무선통신 모듈을 지니고 있어 모바일 인터넷은 물론 무선으로 음악 감상, 내비게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카페나 레스토랑 등의 무선랜이 설치된 곳 어디에서든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 맵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차 운전시 내비게이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아이팟 공식인증 무선이어폰 'S5'도 있다. 디지파이에서는 아이팟용 무선 이어폰 '오페라 S5'를 선보이고 있는 것. 아이팟 또는 스피커에 동글을 장착하면 무선으로 최대 4 대까지 페어링이 가능한 이 제품은 아이팟 30 핀이 적용된 나노, 클래식, 터치와 아이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아이팟 제품에서 파워를 받아 사용할 수 있어 충전이 따로 필요 없다. 더불어 이어폰에 장착된 버튼을 이용해 볼륨 조절 및 재생/멈춤, 앞으로/뒤로 등의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다. '오페라 S1'의 후속모델로 애플에서 Made For iPod License 를 획득한 바 있다.

2008년 4월에 한국에 선보인 S5 시리즈 진공청소기는 독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밀레가 직접 개발한 2200W의 강력한 모터와 미세먼지가 그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강력청정 필터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밀레 'S5'는 진공청소기 S 시리즈 중 하나로 'S'로 독일어 진공청소기(**Staubsauger**)의 단어 앞 글자에서 가져왔다. 첨단 사이클론 패키지로 소음은 대폭 줄였고, 세계 최초로 인증 받은 HEPA 필터와 9겹의 보호막으로 구성돼 못이나 유리조각 같은 물체가 들어와도 찢기지 않는 하이클린 먼지봉투를 장착했다. 기본제품 보다 더욱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4 가지(**Koi Orange, Mango Red, Saffron Yellow, Capri Blue**)컬러로 집안 어디서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연출할 수 있다.

초 슬림의 네이밍으로 X-Slim 란 이름을 사용하는 제품들도 눈에 띈다. MSI 코리아의 초슬림 노트북 X-Slim 시리즈의 첫 제품 'X340'이 그것. 가장 얇은 부분이 0.6cm 에 불과하며 가장 두꺼운 부분도 1.98cm 에 불과한 것이 특징이다.

이미 KTFT 의 휴대폰브랜드 '에버'도 폴더폰 'X-Slim(모델명 EV-W470)'에서도 X-Slim 내놓고 시장 공략 중이다. 역시 2.8 인치 LCD 에 두께가 1cm 도 안되는 초슬림함이 특징점이다.

스타일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을 겨냥해 디자인을 강조한 엣지(edge)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엣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한번 더 돌아보게 하는 그 무엇, 그냥 스쳐지나 갔지만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그 무엇, 바로 이러한 엣지(edge)전략 만으로도 경쟁우위를 얻을 수 있는 디자인과 기능으로 소비자의 구미를 다기고 있다. 실제로 로지텍의 '디노보 엣지' 키보드와 LG '엣지폰'은 제품 이름에 엣지를 넣기도 했다.

먼저, 로지텍코리아의 '디노보 엣지'는 슬림 디자인과 획기적인 기술이 결합된 무선키보드로, 레이저로 커팅된 하이글로시 블랙외관과 함께 오렌지 컬러의 백라이트가 단연 돋보이는 제품이다. 디노보 엣지에 내장된 절제된 버튼, 터치방식의 동적 백릿 아이콘(Backlighted icons)과 11mm의 초슬림 디자인은 스타일리쉬함을 더해준다. 특히, '동적 백릿 아이콘'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터치 시 블랙 유리판 위로 부드러운 오렌지 컬러의 빛을 발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무실, 서재 어느 곳에서도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 거실에서도 사용가능해 거실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07 디자인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2007년 9월 출시 이후로 로지텍의 대표 키보드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는 LG 전자 '엣지폰'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소재를 사용해 휴대폰을 넘어 패션 아이템임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금속 소재의 플메탈프레임을 적용했고, 휴대폰 상단에서 하단까지 색상이 점점 열리는 그라디에이션 기법(점층법)으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을 강조했다. 휴대폰 전면 하단에 발광 다이오드(LED)를 이용한 '라이팅 터치패드'기술을 적용, 사용자의 터치 움직임에 따라 터치패드의 화면이 변하며, 화면에는 강화유리를 장착해 외부충격에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